

프로야구 FA 미계약 선수 4명 거취는?

LG 정성훈 · KT 이진영 · NC 조영훈 · 롯데 황재균 등

프로야구 자유계약(FA) 시장이 폐장 직전이다

2016 시즌이 끝난 후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모두 15명. 이 가운데 11명이 계약을 마무리했고 4명의 선수는 아직 소식이 없다

미 계약 선수는 LG트윈스 정성훈(36), kt 위즈 이진영(36), NC다이노스 조영훈(34), 롯데 지이언츠의 황재균(29) 등이다.

정성훈은 프로데뷔 후 이번이 세번째 FA다. 그는 올 시즌 126경기에 출장해 타율 0.322 6홈런 64타점을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앞서 지난 23일 팀 동료이자 동갑내기인 봉중근이 2년 총액 15억원에 LG와 다시 손을 잡았다. 이 계약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세번째 FA 자격을 취득한 이진영도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계약 기간을 두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선수는 3~4년의 기간을 구단은 2년 계약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영은 올 시즌 115경기에 나서 타율 0.332 10홈런 72타점을 기록하며 복슬지 않는 실력을 보여줬다.

kt 관계자는 "이진영과 구단 모두 서로 함께 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앞으로 계속된 만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영훈은 첫 FA다. NC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30대 중반의 나이와 주전 선수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계약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 시즌 조영훈은 주로 대타로 출전했다. 109경기에 나서 타율 0.335 5홈런 35타점을 기록했다.

다른 FA 선수들에 비해 만족스러운 제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훈은 구단의 조건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앞서 은퇴를 선언한 팀 동료 용덕한(35)과 같은 선택을 할지 고민중이다.

황재균은 다른 FA 선수들보다 여유롭다. 황재균의 시즌성적은 타율 0.335, 27홈런, 113타점을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쳤다.

황재균은 우선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1순위로 정했다.

롯데는 해외 진출 여부가 결정된 뒤에 본격적으로 협상을 한다는 방침이다.

황재균이 믿는 구석은 또 있다. kt와 kt는 이미 황재균과 만나 교감을 가졌다. kt는 외부 수혈을 통해 내년 시즌 끝



KT 위즈 이진영(36)



롯데 지이언츠의 황재균(29)

지 수모에서 벗어나겠다는 각오다. 그만큼 황재균의 카드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롯데와 kt의 영입전 가세로 시간이 지날수록 몸값이 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KIA 타이거즈가 최형우(33)와 맺는 역대 FA 최고액인 4년 1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KBO에 따르면 이번 FA 이적시장은 내년 1월15일 마감된다. 이 기간에 계약을 하지

못하면 KBO에 자유계약선수로 공시가 되며 국내의 모든 구단과 협상을 할 수 있다.

실력 시즌이 개막했다고 하더라도 시즌 중에 언제라도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다만 이적시장이 닫힌 후 계약을 하게 되면 몸값 하락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KBO의 승인을 받고 선수등록을 한 후에야 경기에 나설 수 있다.

/김민근기자

허웅, 올스타 베스트5 팬 투표 중간집계 선두

원주 동부의 주전 가드 허웅(23)(사진)이 올스타 베스트5 팬투표 중간집계에서 선두를 달렸다.



KBL은 지난 19일부터 네이버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2016~2017 KCC 프로농구 올스타 베스트5 팬 투표 중간집계(28일 오전 11시 기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총 6만63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허웅은 3만9430표를 얻어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2015~2016시즌에도 5만518표를 얻어 올스타 베스트5 최다 득표자가 된 허웅은 올 시즌에도 선두를 질주하면서 2년 연속 팬 투표 1위를 예약했다.

올 시즌 주전 가드로 성장한 허웅은 23경기에서 평균 34분을 뛰며 평균 11.5득점 3.4어시스트 1.1스틸을 기록했다.

팬 투표 전체 1~3위는 허웅을 비롯해 가드들이 독식했다.

서울 삼성으로 이적해 부활한 모습을 한껏 과시하고 있는 김태솔(32)이 3만2233표를 얻어 2위를 차지했고, 서울 SK의 주전 포인트가드 김선형(28)이 3만1652표로 뒤를 이었다.

이번 투표는 국내 선수는 1989년생, 외국 선수는 1986년생을 기준으로 시니어, 주니어 올스타로 나누어 진행된다.

전체 순위에서 2, 3위에 올라있는 김태솔 김선형이 시니어 올스타 베스트5 가드 부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포워드 부문에서는 김주성(동부·2만5756표), 애런 헤인즈(고양 오리온·2만687표)가, 센터 부문에서는 오세근(인양 KGC인삼공사·2만3149표)이 이름을 올렸다.

주니어 올스타에서는 최다 득표 1위인 허웅과 1만8367표를 얻은 김지후(전주 KCC)가 베스트5 가드 부문의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포워드 부문에서는 이승현(오리온·2만1174표), 마이클 크레이브(삼성·1만7502표)가, 센터 부문에서는 김종규(창원 LG·2만6536표)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올스타 베스트5 팬 투표는 내년 1월1일까지 계속되며 투표에 참여한 팬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아이폰, 수직수 및 캐리어, 아디다스 농구화, KBL 올스타 패키지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KBL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리는 2016~2017 올스타전은 내년 1월22일 개최된다.

/김민근기자

순창 스포츠 마케팅, 지역경제 효과노릇 '톡톡'

대회개최 85억 · 전지훈련 9억원 등 경제파급효과 총 94억원

순창군이 올 한해 추진한 스포츠 마케팅 성과가 두각을 나타내며 지역경제 효과노릇을 톡톡히 한 걸로 나타났다. 군은 올해 44개 대회를 유치하고 120개 팀이 순창을 찾아 전지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 한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순창을 방문한 인원만 7만 6천여명으로 군 측은 집계하고 있다. 대회기간만 155일이고 전지훈련 기간은 315일이다.

이로 인한 직·간접적 효과 또한 크다. 군은 대회개최 85억 전지훈련 9억원 등 경제파급효과가 총 9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스포츠대회 참가자들은 경기 기간 동안 순창 지역에서 머물며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식당, 숙박업 등 지역 상인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제효과가 크다

이처럼 군이 스포츠마케팅에서 꾸준

히 성과를 내는 데는 실제 다목적 돛구장을 비롯해 겨울철이나 비 오는 날씨에도 테니스와 정구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 경기장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순창군은 지난해 4편의 실내구장을 완공해 총 8편의 실내 구장을 갖추고 있다.

경기장 인프라와 함께 순창군 스포츠 마케팅 관련 직원들의 열정과 노하우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직원들은 대회기간 155일은 물론이고 전지훈련이 진행된 315일 동안 휴일도 반납하고 대회진행에 열정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테니스, 정구 등 실내구장에 의존하지 않고 유치대회 종목의 다각화에 나서 큰 성과를 거뒀다.

실제 올해 10월 전국단위 야구대회인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유치는 큰 성과가



로 남는다. 제대로 된 야구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기장을 야구장으로 활용하고 팔과 열정의 마케팅으로 이뤄낸 성과라 할 수 있다. 전국유소년 야구대회 참가자는 30개팀 800여명에 이른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성과가

나타낸 한해였다. 특히 전국유소년 야구대회를 유치해 경기종목을 다변화하는 등 가능성을 보여준 한해였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도 군민들의 경제에도움이 되고 순창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대회 유치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순창=이왕희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개 · 폐막식 연출에 양정웅씨 내정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 · 폐막식 총연출에 연극 연출가 양정웅(48)씨가 내정됐다.

연극 연출가 고선웅(48)씨는 평창동계패럴림픽 개 · 폐막식 총연출을 맡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28일 "평창올림픽 개 · 폐막식 총연출로 양정웅씨가, 패럴림픽 개 · 폐막식 총연출로 고선웅씨가 내정됐다"며 "다음 달에 공식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개 · 폐막식 총연출 자리는 공식이었다. 송승환 개 · 폐막식 총감독이 분별 감독단을 이끌고 개 · 폐막식을 준비해왔다.

뮤지컬 음악감독인 박갑민씨가 지난해 10월 총연출을 맡았다가 그만뒀다. 이후 패션디자이너이자 공연 연출가인 정구호씨가 총연출로 임명됐지만 중도에 사퇴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송승환 총감독이 공연계 연출가들을 물색해 양정웅씨와 고선웅씨를 총연출로 낙점했다"고 설명했다. 평창올림픽 개 · 폐막식 총연출로 내정된 양정웅씨는 극단 여행자의 대표로, 한국 연극계에서 '체이스피어 전문가'로 소문난 연출가다.

패럴림픽 개 · 폐막식을 맡는 고선웅씨는 올해 한국예술평론가협회회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상' 수상자로, 극공경소 마방진을 이끌고 있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 · 인 · 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공동발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성로 1482 / 063) 320-0114